

##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출자 : 사학과 201921784 김대희

### 목차

- I. 서론
  - II. 니체의 기독교 비판
    - (1) 『도덕의 계보학』 속 기독교 비판
    - (2) 니체의 기독교 비판의 논거
  - III. 니체의 기독교 비판의 오류
  - IV. 결론 :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것들
- 참고문헌

### I. 서론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는 그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으며 거의 모든 저술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특별한 것은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문명 비판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니체는 기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다. 친할아버지는 ‘영원한 기독교의 존속, 현재의 혼란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라는 신교를 옹호하는 글을 썼고,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로서 그리스도교에 헌신했으며, 또한 니체는 이러한 영향으로 엄격한 수도사 생활로 유명한 슐포르타 학교에 진학했다.<sup>2)</sup> 즉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니체에게 억압과 강요였고, 결과적으로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sup>3)</sup>

따라서 본고는 우선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는 기독교는 어떤지 『도덕의 계보학』을 비롯한 니체의 저술들을 통해 탐구하고 그 논거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수십 세기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박하고자 했던 니체는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 최순영, 「니체의 기독교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니체연구』 14, 한국니체학회, 2008, 9쪽.

2)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1, 234쪽 해설 참조.

3) 필자 역시 외할아버지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셨기에 모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지만 니체의 표현처럼 금욕적인 삶이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강요였다. 이러한 삶은 나에게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니체의 시선에 공감하고자 한다.

나의 대답은 부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니체의 기독교 비판에는 오류가 없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되돌아보며, 본고의 제목이기도 한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II. 니체의 기독교 비판

2장 니체의 기독교 비판에서는 해 : 기호와 사유의 텍스트인 『도덕의 계보학』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도덕의 계보학』 외에 니체의 저술들도 살펴봄으로써 그의 기독교 비판의 논거와 논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도덕의 계보학』 속 기독교 비판

우선 ‘기독교와 니체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다. 『도덕의 계보학』의 머리말에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약의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과 어린 시절 악의 기원을 신으로부터 찾는 것에서 니체의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신의 존재, 기독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이 문장이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기에 미리 정정하고자 한다. 니체의 사상 속에 기독교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상과 논리에 대해 간파하고 있어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 『도덕의 계보학』을 통해 어떻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을까? 제1논문에서 니체는 좋음과 나쁨의 계보학적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귀족적 가치 평가 방식과 사제적 가치 평가 방식을 구분한다. 이 중에서 니체는 귀족적 가치 평가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귀족적 평가 방식이 전제하는 것이 강한 체력, 원기 왕성하고 풍요로우며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건강, 건강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즉 니체가 옹호하고 있는 귀족적 평가 방식은 일종의 힘의 윤리로서, 강한 자가 선하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이것을 사제 민족인 유대인이 뒤엎어버린다. 가련한 자, 무력한 자로 대변되는 약한 자만이 선하고 축복받을 자로 뒤엎고, 고귀한 자, 강력한 자로 대변되는 강한 자는 사악하고 저주받을 자로 뒤엎으며,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을 성공시킨다. 니체는 기독교가 이러한 약자들의 증오와 복수심에 둘러싸인 노예도덕에 기반하고 있기에 이를 비판한다.

증오와 복수심만이 문제가 아니다. 니체에 의하면 강한 자들은 행복이 행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기에 활동적인 것이 필연적으로 행복의 일부였다. 그러나 약자들의 행복은 안식일과 같이 긴장을 풀고 사지를 뻗어 휴식을 취하는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귀한 자들은 자신을 신뢰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반면에 원한을 품은 자들은 솔직하지도 순진하지도 않다. 니체에게 기독교란 수동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의 종교라는 것이다.<sup>7)</sup>

노예도덕에 기반한 기독교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이다. 약자들은 현실에서 복수할 수 없기에 상상의 복수를 통해서만 자위하고 그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고자 한다. 이렇게 나중으로 미룬 이 복수의 결과가 바로 약한 것이 선이고, 강한 것이 최악인 천

4) 위의 책, 11-12쪽.

5) 위의 책, 37쪽.

6) 문성학, 「니체의 기독교 비판 : 그 정당성에 대한 검토」, 『철학논총』, 16, 새한철학회, 1999, 33쪽.

7)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45쪽.

국이다. 약한 자들은 바로 이런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불길 속에 휩싸인 자들을 바라보며 복수하기 원한다. 이렇듯 니체는 기독교의 천국이 원한과 복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제2논문에서 니체는 죄와 양심의 가책이 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죄는 부채라는 지극히 물질적인 개념에서 유래되었으며, 양심의 가책은 원한의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라 주장한다.<sup>8)</sup> 니체는 특히 양심의 가책을 심각한 병이라고 간주하는데, ‘인간의 내면화’ 즉 외부로 발산되지 못한 본능이 안으로 향하는 것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의 기원에 대해 더 서술하자면 자유라는 오래된 본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가 조직이 구축해 놓은 방벽이 인간의 모든 본능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인간 자신을 향하게 했고, 이는 인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기 자신을 찢어 버리고 책망하고 물어뜯고 몰아대고 학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sup>9)</sup> 기독교는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인간의 선천적 본능으로 오해하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더 나아가 양심의 가책을 신의 목소리로 둔갑시켰다.<sup>10)</sup> 이것이 니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원시 시대의 종족 집단은 종족이 전적으로 조상의 희생과 업적에 의해 존속한다는 확신과 조상의 희생과 업적을 조상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채 의식은 종족의 힘이 커가는 것에 정비례하여 커지게 되었고, 결국 힘센 종족의 조상은 신적인 존재로 변형되었다. 즉 신성에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의식 가운데 인류는 ‘좋음과 나쁨’의 개념을 세습 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종족신이나 부족신에 대한 부채 의식을 물려받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고의 신인 기독교 신의 출현은 최고치의 죄책감을 주었고 니체는 무신론의 승리가 죄책감에서의 해방을 선사할 것이라 전망했다.<sup>11)</sup> 그러나 신 스스로가 자신과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간은 신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 자신의 동물적 본능 자체를 신에 대한 죄로 간주한다.<sup>12)</sup> 즉 니체는 기독교가 부채 의식을 통해 인간을 억압한다는 맥락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논문에서는 금욕적 이상(사제적 이상)이 무엇보다도 해로운 이상임을 비판하고 있다. 금욕적 이상주의란 사제들에게 사제로서의 본래적인 신앙이나 권력을 부리는 최상의 도구, 또한 권력을 얻는 ‘최상의’ 면허를 의미한다.<sup>13)</sup> 이러한 사제들의 힘에의 의지는 삶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행되는데, 이들은 삶이 무가치하다는 가치평가를 통해 결국 삶에 대한 자신의 욕망(사랑)을 추구한다.<sup>14)</sup> 또한 자신들의 불행을 행복한 자들의 양심에 밀어 넣어 행복을 느끼는 것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제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죄책감 안에서, 과거의 한 단편에서 구하게 하며, 자신의 고통 자체를 별의 상태로 이해하게 한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치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지만 결국 이것은 길들여진, 약화된, 용기를 잃은 의미와 같다. 이는 니체의 표현으로 병자를 더 낮게 만든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자를 더 병들게 만든 것과 같다.<sup>15)</sup>

8) 위의 책, 98쪽.

9) 위의 책, 112쪽.

10) 문성학, 앞의 논문, 44쪽.

11)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121쪽.

12) 김충진, 「니체의 기독교 비판 : 기독교의 정의, 평화, 선의 관념은 '반응적 힘에의 의지'다」,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종교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41쪽.

13)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133쪽.

14) 김충진, 앞의 논문, 44쪽.

15)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201쪽.

## (2) 니체의 기독교 비판의 논거

위에 서술한 『도덕의 계보학』 속 기독교 비판뿐만 아니라 니체의 다른 저술들을 참고하여 니체가 내세운 기독교 비판의 논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도덕의 계보학』의 기독교 비판의 논거부터 정리해보자면, ‘기독교는 노예도덕에 기반한 종교다’, ‘기독교는 수동적이며 거짓의 종교다’, ‘기독교는 원한과 복수심을 통해 천국을 만들어냈다’, ‘기독교는 양심의 가책을 신의 목소리로 둔갑시켰다’, ‘기독교는 부채 의식을 통해 인간을 억압한다’, ‘기독교의 사제들은 삶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여 삶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시킨다’, ‘기독교의 사제들은 삶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벌로 생각하게 하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한다’로 정리될 수 있다.

다른 저술에서의 니체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 니체는 권력의 감정이 갑작스레 인간을 덮칠 때는 스스로의 인격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이 놀라운 감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더욱 강한 인격을, 어떤 신성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sup>16)</sup> 즉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공로를 신의 공로로 돌린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와 같이 기독교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조차 신의 은총, 축복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니체는 기독교가 도덕이건 종교건 현실의 어떤 점과도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주 공상적인 원인(신, 영혼, 자아, 정신, 자유의지, 혹은 부자유한 의지)과 아주 공상적인 결과(죄, 구원, 은총, 벌, 죄 사함)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현실 세계를 왜곡하고 가치를 더럽히고 부정하는 은밀한 허무주의라는 것이다.<sup>17)</sup> 즉 기독교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능동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공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허무한 현실은 직시하지 않는 수동적 허무주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현실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후 세계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 Ⅲ. 니체의 기독교 비판의 오류

우리는 지금까지 니체의 기독교 비판의 논거와 그 논리성을 살펴보았다. 과연 그의 기독교 비판의 논거와 논리성은 정당한지, 그의 비판에 오류가 있진 않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심리학을 넘어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나의 저서에 있어서는 비할 바 없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좋은 독자들이라면 도달하는 아마도 최초의 통찰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8)</sup> 또한 도덕의 계보학에 대한 저술에서도 “제1논문의 진리는 기독교의 심리학을 다룬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9)</sup> 이를 바꿔 말하면 니체는 기독교를 전적으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모든 종교와 형이상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학의 맹신, 절대화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형이상학적 주장, 종교적 믿음)의 존재를 온전히 부정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는 가설이 세워지는 순간에

16) 김충진, 앞의 논문, 37쪽. 참고로 이 인용구는 『권력에의 의지』의 일부로 니체의 사후 유고를 니체의 동생인 엘리자베트가 편집한 책이다. 이로 인해 파시즘적인 사상을 담게 되어 현재는 『권력에의 의지』를 니체의 저서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의 유고들은 니체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니체 관련 논문에서는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17) 프리드리히 니체, 『안티 크리스트』, 1175면, 재인용.

18)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을 보라』, 1104면, 재인용.

19)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10쪽.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되어버리기 때문에 니체 자신의 심리학적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해준다.<sup>20)</sup> 즉 니체의 심리학은 자폐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종교적인 체험과 신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니체가 기독교를 원근법적 해석체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원근법주의를 포기해야 함을 간과했다.<sup>21)22)</sup> 즉 니체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관점, 정의는 모두 그의 세계에 갇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신성, 초월성을 배제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니체는 자신의 주장에서 철저히 초월성을 배제하려 노력한다. 초월성의 배제가 과학적이고 학문적이라는 근대적 공식에 입각한 니체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제자들의 주장을 사기로 일축하는데,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학문과 초월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세속 학문은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3)</sup> 즉 자연주의에 입각한 근대 철학의 시선의 한계인 물리적 자연으로 간주될 수 없는 존재를 물리적 자연으로 파악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에 관점은 편향적인 관점일 뿐이다.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신성-인성, 초월성-현실성의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총체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24)</sup>

심리학적인 관점, 초월적인 문제가 아닌 니체 철학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바로 선교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가 복수심에 기반했으며, 그 복수를 현실에서 할 수 없기에 원한 감정으로 천국을 만든다는 니체의 주장은 기독교의 선교 활동을 설명할 수 없다. 예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설교했다.<sup>25)</sup> 기독교가 진정으로 복수를 원하는 종교라면 예수의 말씀처럼 복수의 대상인 '강한 자'들이 포함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을까? 예수의 지상명령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바울이다. 니체는 바울을 예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시킨 모든 복수의 사도 중 최고이자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생각한다.<sup>26)</sup> 예수가 강조한 '행함'을 바울이 '믿음'으로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는 '행함'을 강조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한편 바울이 믿음을 중요시한 것도 사실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나 예수도 믿음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것을 니체는 간과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듯 예수

20) 문성학, 앞의 논문, 50쪽.

21) 원근법주의 : 그림의 원근법에서 풍경이 화가를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과 같이, 인식은 인식 주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것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설. 인식 주체의 입장을 떠나서 보편 타당한 인식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상대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

22) 위의 논문, 52쪽.

23) 최순영, 「니체의 기독교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니체연구』 14, 한국니체학회, 2008, 37쪽.

24) 위의 논문, 43쪽.

25) 사도행전, 1장 8절

26) 정낙림, 「가치전도와 힘에의 의지의 계보학 : 바울의 가치전도에 대한 니체의 비판」, 『哲學研究』 148, 대한철학회, 2018, 328쪽.

는 행함뿐만 아니라 믿음도 구원의 조건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바울이 믿음을 구원의 요소로 본 것은 예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상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니체는 예수에게는 죄와 벌의 개념이 없었고, 보상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며, 신에게 향하는 길은 회개도 아니고 용서의 기도도 아니며 오로지 복음적인 실천만이 신에게 인도하며 복음의 실천이 바로 신이라고 주장했다.<sup>27)</sup> 그러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를 통해 예수가 직접 지옥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며, 죄와 벌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를 통해 예수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를 통해 예수가 복음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니체의 주장에 비약이 생긴 것은 앞서 서술했듯이 예수의 신성을 배제하고 그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IV. 결론 :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것들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앞서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그 논거들을 정리했으며, 이러한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가지는 오류도 살펴보았다.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심리학적인 자폐성이 존재하고 초월성을 배제한 비판일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19세기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심리학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한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자 한 사람은 니체뿐이다. 기독교에 대한 의문 부호를 붙이고 이에 답을 달고자 했던 사람도 니체뿐이다. 이로 인해 그의 기독교 비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어 많은 논문과 비평을 낳고 있다.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것은 자신의 저술로 하여금 기독교와 관련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제를 던진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기독교 비판의 특징은 예수의 신성은 부정했는지 모르나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를 진정한, 유일한 기독교인으로서 인정했다는 것도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것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신교에 관한 니체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동안 뿌리를 박은 기독교를 뒤흔든 루터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니체의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사제들과 기독교의 관조적 삶에 대한 불신을 일깨워 비기독교적인 관조적 삶이 다시 가능하게 했다는 것, 사제적인 삶과 기독교적인 삶 전체를 이 삶을 떠받들고 있던 금욕적 이상주의와 함께 다시 생각해보게 한 것, 즉 니체는 기독교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sup>28)</sup>

니체가 이러한 기독교와의 대결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신의 죽음 이후, 이 죽음이 가져온 허무주의를 견뎌내는 자들, 삶을 자체적으로 긍정하는 건강한 유럽인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궁색한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의미의 공백과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27) 위의 논문, 336쪽.

28) 양대중, 「니체 철학에 나타난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니체연구』 32, 한국니체학회, 2017, 27-28쪽.

자들이다. 니체는 이들이 직면할 문제가 인간 실존의 의미임을 말한다.<sup>29)</sup> 즉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일종의 소논문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니체의 방대한 저술 전부를 다룰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시사하는 바’를 읽으며, 독자들이 개연성과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음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짧다면 짧은 글이 독자들에게 니체의 기독교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글을 마치는 지금, 이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도덕의 계보학』을 읽으며 느낀 나의 감상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도덕의 계보학』 속 니체의 사상에 대한 첫인상은 분노와 우울함과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기 위해 계속해서 니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끝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 숨겨진 허무주의와 맞서 싸우고자 했던 니체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아쉽다. 니체의 유년 시절이 기독교에 얽매이지 않았더라면, 그의 저술이 더 큰 환영과 관심을 받았더라면, 그가 사랑을 이루었더라면, 그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와 신을 부정하지 않는 더 밝은 모습의 니체를 볼 수 있었을까?

---

29)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51쪽, 재인용.

## 참고문헌

### 학위논문

김충진, 「니체의 기독교 비판 : 기독교의 정의, 평화, 선의 관념은 '반응적 힘에의 의지'다」,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종교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이희영, 「니체의 기독교 비판에 나타난 정치적 니힐리즘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학술지논문

문성학, 「니체의 기독교 비판 : 그 정당성에 대한 검토」, 『철학논총』, 16, 새한철학회, 1999.

박흥기, 「니체와 기독교 : 허무주의의 논리와 기독교의 필연성」, 『니체연구』 14, 한국니체학회, 2008.

양대종, 「니체 철학에 나타난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니체연구』 32, 한국니체학회, 2017.

정낙림, 「가치전도와 힘에의 의지의 계보학 : 바울의 가치전도에 대한 니체의 비판」, 『哲學研究』 148, 대한철학회, 2018.

최순영, 「니체의 기독교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니체연구』 14, 한국니체학회, 2008.

### 단행본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1.

프리드리히 니체, 『안티 크리스트』, 재인용.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을 보라』, 재인용.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재인용.

### 기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표준국어대사전